백두산

12호 - 주체91(2002)년 4월 26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에 즈음하여 삼가 드린 축하문

오늘 우리들은 위대한 영장을 모시어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는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경사로운 건군절에 즈음하여 21세기의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군은 수천년 민족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영장, 위대한 사상에 의해 향도되는 진정한 혁명군, 민족군의 탄생이었으며 주체적 혁명무력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창군후 오늘에 이르는 70성상 조선인민군은 백두의 위대한 전설적 위인들의 탁월한 영도아래 자주적인 군건설의 세기적 모범을 창조하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장구한 노정위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불멸의 위훈을 찬란히 아로새겨 왔습니다.

조선인민군의 창군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지략, 주체의 전법과 걸출한 영군술로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미, 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격멸하시어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주체적인 자위의 군사노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어 조선인민군을 일당백의 무적강군으로 억세게 키우시고 전국가적, 전민중적 방위체계를 철옹성같이 세워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튼튼히 마련하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십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중시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아래 조선인민군은 당과 수령, 조국과 민중에게 무한히 충실한 불패의 군대로 자라났으며 혁명의 준엄한 연대들마다에서 온갖 원수들의 횡포한 도전을 단호히 짓부수며 주체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선군사상과 군건설위업은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준엄한 포화 속에서 영장의 슬기와 담력을 키우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세기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습니다.

백두산장군들의 총대가풍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 나갈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군사사상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시고 전군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쌓아올리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영도로 군안에 혁명적인 영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시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빛나게 실현하시어 조선인민군을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주체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선군혁명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어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민중이라는 혁명적 총대철학을 내놓으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주체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영도하시어 20세기를 **김일성**세기로 찬연히 빛내이시고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으신 것은 주체의 건군사에 특기할 업적중의 대업적입니다.

오늘 조선인민군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차넘치는 충성의 대오로, 최고사령관과 혼연일체를 이룬 사상의 강군, 동지애의 강군으로,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강위력한 불패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되어 세계를 경탄시키고 원수들을 전율케하고 있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혁명영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어 조선인민군은 **김정일**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며 수령의 혁명위업의 수호자, 주체조국의 보위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인민군대의 사상과 투쟁기풍, 생활기풍은 사회의 본보기로, 이북민중의 사상정신적 풍모로 되어 군민일치와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총대중시사상과 특유의 선군정치, 선군영도에 의해 오늘 주체조선은 혁명의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는 사회주의보루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성새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 인류자주위업은 주체의 궤도따라 힘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비범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 주체의 전법과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인민군대를 천하제일강군으로 키우시어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시고 조국과 민족,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할 공적을 쌓아올리신 천출명장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우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어 대를 이어 영수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영광과 한없는 자긍심에 넘쳐있으며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을 백배, 천배로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독특한 선군정치는 우리 민중, 우리 민족의 안녕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치이며 **김일성**민족의 찬란한 미래와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건설의 확고한 담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남녘민중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2면에 계속)

2 조선인미군창군 70돌
- 조선인민군은 민족의 자랑
- 백승의 70년
- 조선인민혁명군창건과 그 역사적 의미
- 천출명장/ 선군정치/ 군민일치/ 관병일치

5 종합
- 조선혁명박물관 개관 30돐
- ≪종군위안부≫범죄는 성노예행위
- 미국전투기도입결정은 철회되여야 한다

6 노작
-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7)

8 세기와 더불어
- 7장 2절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1)

10 노동신문 사설
- 전민의 사랑과 지지성원을 받는 우리 군대는 필승불패이다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반미항전으로 민족공멸을 막자
- 산초판사 ≪한국≫이 되지 말아야
- 부시정권 기관지

13 투쟁보도
- ≪5.18시민법정 추진위≫ 발족
- 용산미군기지 실천단, 10차 결의대회
- 샌후란시스코 반전평화시위
- 반부패제도개혁 절실
- 공무원노조 합법화하라

15 운동강좌
-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조선인민군은 민족의 자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민족자주통일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겨레의 지향과 의지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는 속에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수호하며 참다운 민족군으로써의 위력을 만방에 떨쳐가고 있는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70성상의 역사는 백두산장군들의 선군의 기치따라 백승을 떨치며 민족자주위업을 영예롭게 수호해온 자랑찬 역사입니다.

일찍이 변혁운동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무력창설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탁월한 군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지금으로부터 70년전인 주체21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셨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유구 반만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자신의 참다운 민족군을 가지게 되였고 15성상의 항일대전에서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혁위업수행에서 군사선행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광복후에도 정규무력건설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심으로써 민족자주위업의 성공적 전진을 위한 정치군사적 담보를 확고히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석님의 현명한 영도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직접적으로 계승하여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은 지난 6.25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놓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세계만방에 민족의 위상을 높이 떨쳤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전후에도 미국의 끊임없는 새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자위의 군사노선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인민군대를 불패의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하시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발전시켜 오셨습니다.

주석님의 선견지명한 선군영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민군은 변혁운동의 준엄한 연대들마다 온갖 원수의 횡포한 도전을 단호히 짓부수고 민족자주위업의 성공적 전진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였습니다.

참으로 선군혁명영도의 새 역사를 개척하시어 두차례 반제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자주시대의 혁명무력건설의 고귀한 수범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주석님의 불멸의 공적은 나라의 통일과 반제자주를 위한 우리 민중과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투쟁사에 기리 빛을 뿌릴 것입니다.

경애하는 주석님의 주체의 군건설위업과 선군혁명영도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총대를 거머쥐시고 총대로 민족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주석님께서 마련하신 백두의 선군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오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최근 수년간 제국주의자들의 책동과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시어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총대철학을 제시하시고 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걸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셨습니다.

근 40성상을 헤아리시는 그분의 선군영도사가 있기에 오늘날 조선인민군은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를 결사옹위할 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그 어떤 강적도 쳐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갖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지키고 조국통일위업을 무력으로 담보하는 참다운 민족군으로써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70년전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참다운 민족의 수호자, 민족번영의 담보자로써의 조선인민군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겨레 모두의 기쁨이고 영예이며 자랑입니다.

하기에 오늘 우리 민족 모두는 백두의 천출명장들의 선군영도하에 자기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있는 조선인민군을 세계 제일의 강군으로 끝없이 격찬하고 있으며 창건절을 맞는 조선인민군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각계 애국민중 모두가 위대한 영장을 모시고 민족자주위업을 무력으로 담보해가고 있는 조선인민군과 같은 **의 참다운 민족군이 있는 커다란 자긍심을 안고 자주통일의 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조국통일성업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섬으로써 이 땅위에 하루빨리 통일조국의 새날을 안아와야 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논설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5일

(1면에서 계속)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은 곧 민족의 운명이시며 조국통일이시라는 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한민전과 변혁운동대오를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참된 충신의 대오, 결사관철의 대오로 더욱 굳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민전과 각계 애국민중은 미제와 그 주구배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을 거족적인 반미, 반전항쟁으로 단호히 분쇄하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6.15공동선언실현의 열풍을 더욱 거세차게 일으켜 올해를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남녘민중의 간절한 소원이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결정적 담보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층 애국 민중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 (2002)년 4월 25일
서울

백승의 70년

서울이 축하의 인사 드리노라
부산이 경하의 시를 터치노라
경향이 4월의 이 봄날
마음합쳐 목소리 합쳐 노래하노라

저 멀리 안도의 숲속에서
겨레구원의 사명을 안고
총대가 솟구쳐 장장 70년

멀리도 왔구나 총이여
무적필승의 총성을 터치며
백전백승의 승전고 울리며

그 나날에 겨레는 보았다
빨치산 김대장 항일의 총구앞에
만신창이 된 일제의 몰골을

정녕 통쾌하게 보았다
이북의 총대와 감히 맞섰다가
패배의 쓴입을 다시며
항복서에 도장을 찍은 미제의 낯짝을

그 총대 바다로 향하면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가
독안의 쥐신세가 되고
그 총구 하늘을 겨누면
간첩비행기 ≪EC-121≫이
부나비처럼 땅바닥에 곤두박히고

맞설 자가 없는 이북의 총대
백발백중하는 이북의 총대
김일성주석님 산악같은 믿음으로
김정일장군님께 넘겨주셨나니

총을 첫자리에 세우시는 분
총을 자신처럼 믿으시는 분
총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분

오, **김정일**장군님
그 총대 기발대 삼아
선군의 기폭을 힘차게 휘날리시나니
백승의 총대역사 70년은
7백년 7천년 길이 빛나리라

7천만 겨레의 간절한 소원
조국통일의 축포성도
이 총구에서 높이 터져오르리라
통일된 내 조국 강성대국도
이 총대아래 무궁번영하리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과 그 역사적 의미

올해 4월25일은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켜주는 조선인민군창건 70돌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조선인민군이 걸어 온 70년의 역사는 위대한 영장을 조선인민군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분들의 선군사상, 선군영도로 백승만을 떨쳐 온 영광의 연대기로 찬란히 수놓아져 있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32년 4월25일 조선인민혁명군(당시 반일인민유격대)을 창건하셨다.

김일성주석님에 의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주체혁명무력의 출현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찍이 주체의 원리를 구현하시어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일제를 무장으로써만 격멸할 수 있다는 선군사상을 제시하시고 군대를 창건하시어 그 강화발전을 현명하게 영도하셨다.

반일인민유격대 창건

조선인민혁명군은 위대한 주석님의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는 주체형의 혁명무력이었고 선진적인 노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조직되어 조국광복과 근로민중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참다운 민족의 군대, 민중의 군대였다.

천출위인 백두의 영장이신 주석님의 탁월한 영도에 의해서 조선인민혁명군은 국가적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간고한 투쟁을 벌여 일제대군을 격멸소탕하고 1945년 8월15일 마침내 조국광복위업을 성취했다.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광복이후 이북에서 새 사회건설의 거창한 사업을 영도하실 때부터 언제나 군대를 강화하는 것을 선차적 과제로 내세우시고 그를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자위적 군사력으로 강화된 조선인민군의 정규군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장구한 항일대전에서 불패의 위용을 과시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조선인민군은 지난 6.25전쟁시기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15개국추종세력과 반동들의 침략을 짓부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만방에 떨쳤다.

이처럼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영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제국주의 두≪강적≫을 쳐부셨을 뿐아니라 제국주의침략세력과 직접 맞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짓부수고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지켜왔다.

총대중시, 군사중시에 의해 계승되는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합법칙성을 통찰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백두의 선군전통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셨다.

주석님께서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의해 높이 추대되신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영도를 군민이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생의 마지막 시각까지 온갖 심혈을 바치시었다.

조선인민군이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된 역사에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불멸의 업적도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다. 백두의 여장군 **김정숙**여사께서는 위대한 주석님의 선군사상을 받들고 조국광복위업에 불멸의 위훈을 세우시었다. 그리고 광복이후에는 건군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었다.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전통인 수령결사옹위의 최고귀감도 항일의 여장군 **김정숙**여사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 떨쳐 온 인민군의 전투적 행로에도 **김정숙**여사의 거룩한 자국이 역력히 새겨져 있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께서 백두광명성을 안아 올리시어 주체의 선군전통을 굿굿이 계승해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선군혁명의 길에서 쌓아올리신 특출한 업적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마련하신 백두의 선군전통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총대를 거머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인민군의 강화발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40성상을 헤아리는 위대한 영도사는 총대를 혁명의 가장 위력한 무기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당과 국가건설, 경제건설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전성기를 열어오신 영광찬 연대기이다.

특히 지난 7년간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실록은 독창적인 선군영도, 선군정치를 창조하여 선군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연대기로 빛나고 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95년 설날에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어 생전의 모습 그대로이신 **김일성**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하시고 그 길로 다박솔 중대를 찾으시어 역사적인 선군정치, 선군영도의 거룩한 첫 자국을 새기시었다. 그분께서는 전선과 후방, 외진 섬의 수많은 군부대에 대한 시찰과 무력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이 과정에 장군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 속에서 높이 발양되고 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육탄정신, 자폭정신을 혁명적 군인정신이라고 규정하시고 온 민중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어 조국을 보위하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하여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나가는 새로운 정치방식, 선군정치방식을 정립하시었다.

이러한 선군영도,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이북에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성공적으로 결속짓고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까지 마련하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할 수 있은 것이다.

오늘 미국의 부시호전세력은 ≪악의 축≫,≪핵선제공격≫을 운운하며 북침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 그러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영도를 받는 무적필승의 강군, 조선인민군의 위력 앞에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위대한 영장의 영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이 있기에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종국적 완성은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이북에서 민족의 자주권은 굳건히 수호되고 있는 것이다.

차명식 - 구국전선
주체91년 4월 25일

천출명장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는 인간의 모든 지성과 재능을 다 겸비한 천출명장이시다.

천만대적앞에서도 끄떡하지 않으시는 담력과 배짱은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지니신 고유한 기질의 하나이다.

주체65(1976)년 8월 ≪판문점사건≫때 식사도 못하고 긴장해 있는 일군들에게 밥이야 먹고 봐야 한다고, 적들이 덤벼 들면 본때 있게 쳐 갈기자고 여유 있게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적들의 도발책동이 있을 때마다 무자비하게 징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림기응변의 지략으로 그 어떤 강적도 쥐락펴락하시며 언제나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나가시였다.

1993년 적들의 군사적압력과 ≪핵사찰≫소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되였을 때에 전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는 강경고압자세로 적들의 책동을 짓부셔 버리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드놀지 않는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지니시고 적들의 고립압살책동과 여러해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조선인민이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선대수령이 추켜 든 혁명의 붉은기를 변함없이 고수해 나가시였다.

그리고 가장 열렬한 애병, 애민의 마음으로 천만대중을 하나로 묶어 세워 그들 모두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믿어 주시고 가장 숭고한 동지애와 의리로 승리를 떨쳐 가도록 하시였다.

참으로 **김정일**령도자께서 지니신 위인적 풍모는 만민을 경탄케 하고 있다.

선군정치

선군정치는 조선의 기본정치방식이다.

이것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며 군대를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이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력사적뿌리를 두고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 하나의 전일적인 정치방식으로 완성된 선군정치는 오늘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인민군대는 그 어떤 강적도 쳐 부실수 있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고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으로 생사기로에 놓였던 사회주의조선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수호되였다.

이 정치방식은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인민군대가 가장 적극적인 력량으로 되게 하였다.

군인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업들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으로 해내는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안변청년발전소 제1계단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낸것은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 그 건설규모는 5년동안에 40억딸라를 투자하여 건설한 서해갑문의 2배와 맞먹는 방대한것이였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지난 7년동안에 6,000여개의 공업대상과 1,500여개의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근 4만개 대상건설이 완공되였다.

이 정치는 조국통일위업수행과 대외관계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왔다.

군민일치

조선에서는 군대와 인민이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도와 주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지난 2월 조선인민군 박윤두소속부대 군인들은 불 붙는 살림집에 서슴없이 뛰여 들어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 냈으며 강원도 통천군에서는 전신 78프로에 3도화상을 입은 5살 난 인민군군관의 아들을 온 군이 떨쳐나 기적적으로 살려 냈다.

강물에 빠진 아이들을 목숨 바쳐 구원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은 온 나라에 차고 넘치는 평범한 사실로 되고 있다.

군민일치미풍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 전통이 마련되였다.

국가적후방도, 지원도 없이 장구한 기간 일제와 싸워 조국광복을 이룩할수 있은것도,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련합세력과 맞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려 버린것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싸운데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다.

오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더욱 풍만한 화원으로 꽃 펴 나고 있다.

관병일치

조선인민군대에서 관병일치, 상하일치의 미풍이 높이 발휘되고 있다.

지휘관과 병사, 상급과 하급이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관병일치의 미풍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 전통이 마련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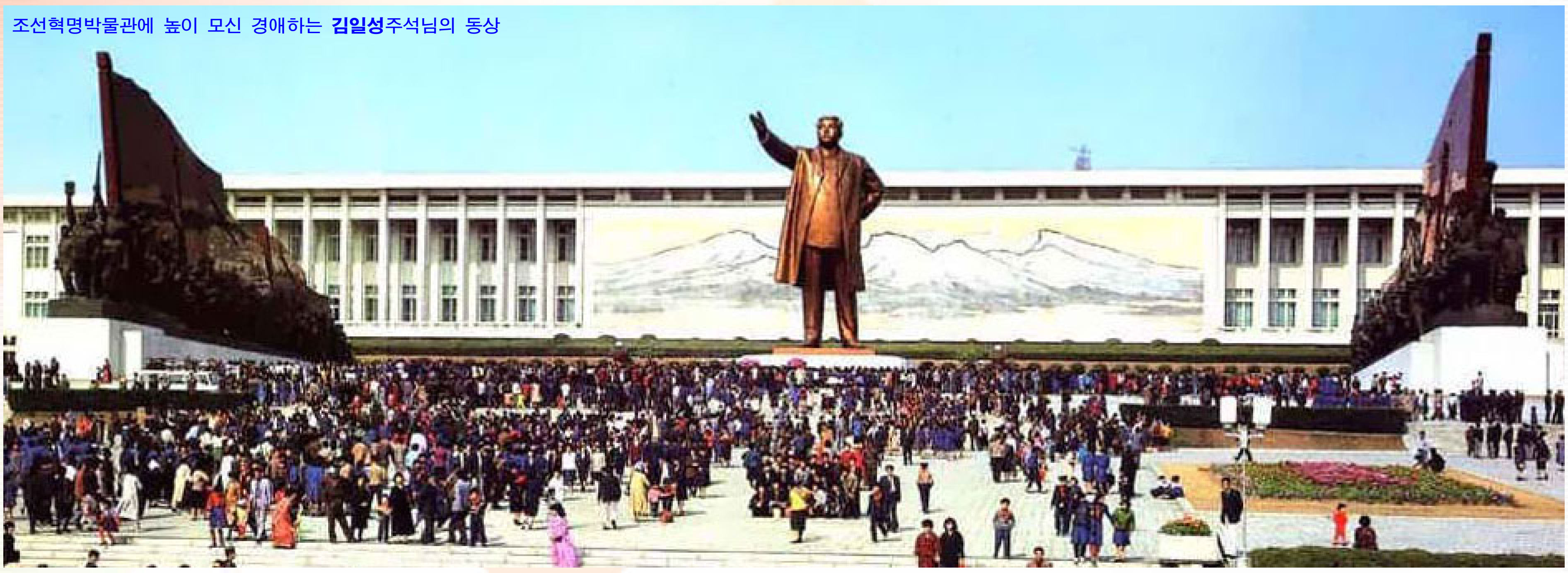
혁명적동지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미풍은 조선의 혁명적무장력이 미일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조국광복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은 오늘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 있다.

1990년대의 첫 영웅으로 널리 알려 진 김광철소대장이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전사들을 구원한 사실과 주체88(1999)년 6월에 일어 난 서해사건때 날아오는 적탄을 몸으로 막아 지휘관을 구원한 사실들은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

이 전통적미풍은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굳건히 다져 주고 있다.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모시고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로 개관한 때로부터 30돐


조선혁명박물관에 높이 모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동상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은 각계 근로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시고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로 개관한 때로부터 30돐이 된다.

주석을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에 의하여 주체61(1972)년 4월 24일 만수대언덕에 그이의 동상이 건립되였으며 조선혁명박물관이 새로 훌륭히 일떠섰다.

그리하여 주석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조선로동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갈수 있는 불멸의 기념비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개관된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시여 조선혁명의 100년사가 집대성되여 있는 진렬실들을 일일이 돌아 보시면서 귀중한 자료들도 고증해 주시였다.

오늘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모신 만수대언덕은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류의 태양숭배의 성지로 되였다. 지난 30년간 12억 4,124만 7,600여명의 조선인민과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이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와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이 기간 20만여점의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된 조선혁명박물관 참관자수는 1,616만 9,000여명에 이르렀으며 외국인들은 6만 7,000여명에 달한다.

주석의 동상을 모시고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로 개관한 30돐 기념보고회가 23일에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4일

≪종군위안부≫범죄는 근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성노예행위

조선대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연설

일본이 새 세기 국제사회의 자격 있는 일원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유일한 길은 20세기 인류사를 야만적인 침략과 략탈, 최대의 집단강간으로 더럽힌 과거와 깨끗이 결별하는것이며 무엇보다먼저 과거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죄하며 응당한 보상을 하는것이다.

17일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58차회의 안건 12항(녀성권리) 토의시 연설한 조선대표가 이와 같이 강조하였다. 그는 오늘까지 미결건으로 남아 있는 근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성노예행위는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과 그 이전시기에 조선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수많은 녀성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종군위안부≫범죄라고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국제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른 나라는 마땅히 법적, 도덕적책임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만은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 과거청산은커녕 과거범죄에 대한 책임인정마저 회피하고 있다. 만일 일본이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성근한 자세로 사죄와 보상에 나섰다면 초보적인 량심도 없는 나라로 규탄 받지 않았을것이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광복직후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여 민족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을 법적으로 고착시켰으며 녀성들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법률, 실천적조치들과 시책들을 끊임없이 실시해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녀성권리보호증진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갈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4일

미국전투기도입결정은 당장 철회되여야 한다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남조선≪국방부≫가 19일 차세대전투기 기종으로 미국 보잉회사의 ≪F－15K≫기를 확정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지난 4월 5일 공동보도문에 따라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일시 동결되였던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려는 긍정적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허용될수 없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은 민족적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남조선에 필요되는것은 민족적화해분위기이지 동족을 해치라고 외세가 팔아 넘기는 살인무기 때문에 빚어지는 대결과 전쟁분위기가 아니다. 문제는 남조선의 군사당국이 미군수독점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평화에 대한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를 묵살하였다는데 있다.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와 민족을 희생시키는것도 서슴지 않는 미국의 강요에 의하여 남조선≪국방부≫가 미국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것은 그들의 대미굴종행위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은 5조 8, 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전투기판매를 남조선에 강요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빨아 미군수독점체의 배를 불려 주려 하고 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이 핵무기를 실을수 있는 수십대의 전투기를 남조선에 들이밀어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 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이 ≪핵태세검토≫보고서라는것을 통해 우리를 포함한 일부 나라들을 핵공격대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이번에 전투기를 강제로 판매하려는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코 핵전쟁을 유발시키려는 범죄적시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보인것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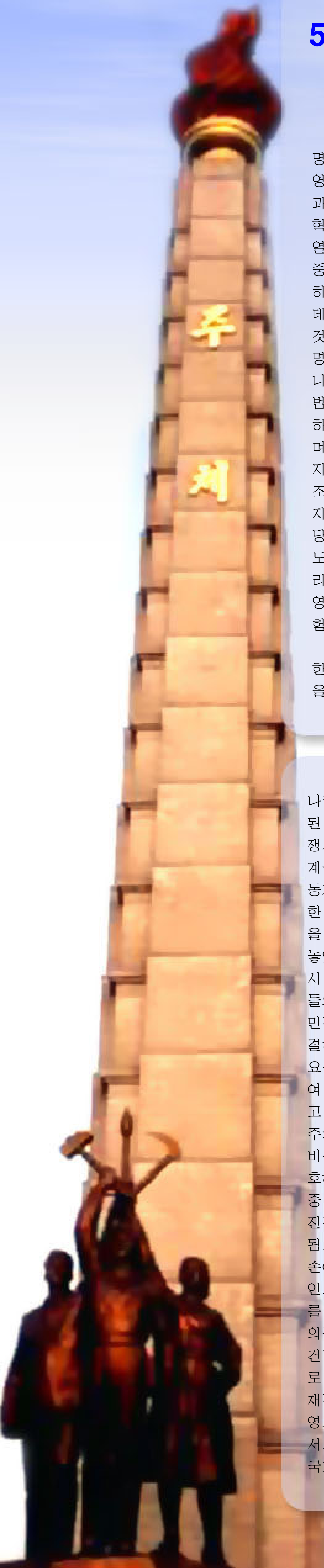
남조선을 저들의 핵전략, 대아시아전략실현의 작전적거점으로 삼고 이 전략실현에 사용할 최신예전투기들을 사전에 현지배비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을 다시금 격화시키는 도화선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무기판매책동은 조선반도의 평화과정을 지연시키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군사정세를 긴장시키는 강압적인 전투기판매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남조선≪국방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4월 24일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7)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노작 - 주체75(1986)년



5.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 (1)

노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운명은 전적으로 당의 영도적 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영도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입니다. 당은 혁명과 건설을 옳게 영도하여야 합니다. 당대열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강화하는 것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잘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당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는 정치적 영도입니다.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대중을 혁명과업 수행에로 불러일으키며 당의 노선과 정책이 옳게 관철되도록 장악지도하여야 합니다. 당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조직 동원하는 정치 조직인 것만큼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적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옳게 영도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 귀중한 성과의 경험을 이룩하였습니다.

당이 혁명과 건설을 옳게 영도하려면 정확한 노선과 정책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능숙하게 조직, 지도하여야 합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전략과 전술이며 투쟁의 지침입니다. 당이 노선과 정책을 옳게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혁명과 건설의 전략과 전술이며 투쟁의 지침입니다. 당이 노선과 정책을 옳게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정확한 방향과 방도에 따라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노선과 정책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세웠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이 내놓은 모든 정책과 노선은 철저히 자신의 신념과 독자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세운 것입니다.

우리 당은 노선과 정책을 세우는데서 주관주의를 특별히 경계하였습니다. 당이 노선과 정책을 세우는데서 주관주의를 범하게되면 그 악폐가 매우 큽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현실적 조건을 무시하고 주관주의적으로 세운 노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에게 접수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제대로 집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옳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현실을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그에 맞게 노선과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우리 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정확한 지침으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선과 정책을 정확히 세웠을 뿐아니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옳게 조직, 지도하였습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인민대중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설 때에만 성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선전을 강화하며 그들이 당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 정치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단합된 힘과 창조적 지혜를 당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동원하였습니다.

당이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주권문제를 옳게 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권에 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 문제입니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노동계급의 당이 주권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방 직후 먼저 주권문제를 해결하는데 달라붙었습니다. 주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방 후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한 우리 조국의 분열과 당대오 안에 기어든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은 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때 우경투항주의분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부르조아공화국을 세워야 한다고 떠벌였으며 좌경분자들은 당장 우리 나라에 소비에트정권을 세우고 사회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무시한 그릇된 견해였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혁명의 임무와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을 세울 데 대한 주체적인 정권건설 노선을 내놓았습니다. 이 노선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에 기초하여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인민정권을 세움으로써 주권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조선혁명의 요구와 근로인민대중의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우리 자신이 세우고 우리 자신이 운영하는 주체적인 정권입니다. 인민정권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참다운 민주주의적 정권이며 광범한 대중 속에 뿌리박고 그들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진정한 인민의 정권입니다. 인민정권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쥔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었으며 혁명과 건설에 힘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으로 출발한 인민정권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혁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르러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강화, 발전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영도 밑에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이야말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단계에 맞는 정권일 뿐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시기에도 맞는 가장 우월한 정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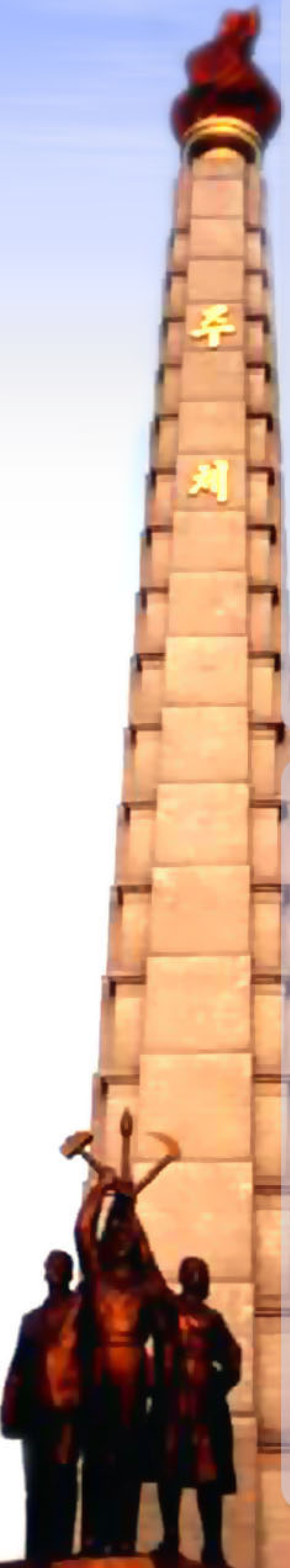
우리 당은 인민정권을 무기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옳게 영도하여 왔습니다. 해방 후 우리 앞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해야할 과업이 나섰습니다. 우리 당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것을 당면한 투쟁강령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선 과업은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였습니다.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농촌에 뿌리박은 반동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없애고 농민들을 봉건적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할 수 있었으며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농촌의 계급관계와 토지소유관계,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 소망을 고려하여 토지몰수 대상을 바로 규정하고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는 토지개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동과 빈농에 의거하고 중농과 동맹하여 부농을 고립시키는 계급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고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토지개혁의 역사적 과업을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토지 개혁에 뒤이어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실시함으로써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혁명적 민주기지를 튼튼히 다져놓았습니다.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하는 것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입니다. 전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사회주의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1955년 4월 테제에서 사회주의혁명을 본격적으로 다그칠 데 대한 노선을 내놓았습니다.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는 것은 사회주의혁명의 기본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 당은 전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촌경리의 기술개조에 앞서 경영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농업협동적 운동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그 때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은 공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현대적 농기계가 없는 조건에서 공업협동화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우리 당의 농업협동화 방침을 반대하여 나섰습니다. 물론 그 때 우리 나라의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수준이 높지 못한 것은 사실이였습니다. 그러나 농업협동화는 반드시 공업화를 한 기초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력과 기술발전 수준은 비교적 낮다 하더라도 생활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

→

노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운명은 전적으로 당의 영도적 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영도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입니다.



며 그것을 맡아 수행할만하나 혁명역량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는 농업협동화를 지체없이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 운동을 지도하는데서 자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협동화 운동에서 강제적 방법을 배격하고 농민들이 협동경리에 자원적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경험적 단계를 설정하고 실천적 모범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재산 정도와 사상적 준비정도,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농업 협동경리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농민들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어느 한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성의 원칙에 따라 다기한 계층의 농민들을 협동 경리에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 당은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부농을 제한하며 점차적으로 개조하는 계급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방침과 적극적인 지도의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사오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났습니다.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농촌경리의 협동화와 함께 사회주의혁명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 당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하는데서 우리 나라 자본주의상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을 수탈하지 않고 개조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그들을 여러 가지 형태의 협동경리에 망라하는 방법으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이 기본과업으로 나서게 됩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 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에는 계급적 차이와 노동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려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됩니다.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이 실현되어도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고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남아있는 한 인민대중들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낡은 사회의 유물이 청산되어야 완전히 실현될 수 있으며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자면 사회주의사회에서도 혁명을 계속해야 합니다. 3대혁명은 사회생활의 기본영역인 사람들의 사상생활, 노동생활, 문화생활 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여야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 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우리 당은 3대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활동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규제적 역할과 혁명투쟁에서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한 가장 정당한 방침입니다. 사상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노동계급화, 혁명화하여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입니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면서 그들이 조직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하고 혁명적 교양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상혁명을 혁명투쟁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 단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혁명을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증진시키어 노동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술혁명은 단순히 기술을 반절시키기 위한 실무적 과업이 아니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과업입니다. 우리 당은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노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기술혁신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혁명은 낡은 사회가 남겨 놓은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문화혁명의 중심과업은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 노선을 내세우고 교육과 과학, 문학, 예술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3대혁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3대 혁명소조 운동을 발기하고 당 핵심들과 청년 인텔리들로 3대혁명소조를 묶어 인민경제의 여러부문에 파견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 사상적 지도와 과학기술적 지도를 결합하고 위가 아래를 도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나가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입니다.

우리는 3대혁명소조 운동을 힘있게 벌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혁명 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실생활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였습니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총노선으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 하나입니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생산력의 높은 발전을 이룩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생활을 끊임없이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으며 국방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권당의 당사업은 언제나 경제과업수행과 밀착되어야 하며 당의 모든 활동은 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한 데로 지향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집권한 첫날부터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반전시키며 그 위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경제 건선 분야에 구현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을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옳게 영도하여 왔습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제 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자립적민족경제는 자체의 힘으로 움직이고 다방면적으로 발전하고 합리적 기술로 정비된 종합적인 경제이며 자기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것을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는 인민적인 경제입니다.

우리 당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확고히 견지하여 왔습니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현실적 가능성을 옳게 타산한 데 기초하여 내놓은 정당한 노선이며 자립적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칠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노선입니다. 우리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노선을 확고히 견지하였기 때문에 그 처절, 참혹했던 전쟁의 피해를 가시고 짧은 기간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을 수 있었으며 뒤떨어진 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활동을 과학화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를 주체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다같이 힘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활동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내일 계속)

3권 제7장

인민의 세상

1. 보금자리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3. 소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4. 국제당파견원
5. 백마에 대한 추억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1)

우리는 마촌에 와서도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았다. 요영구의 승전소식이 간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가던 때여서 우리에 대한 소왕청 인민들의 환영열도 대단히 높았다.

적의 통치에서 완전히 해방된 유격구의 생활은 우리 일행을 몹시 흐뭇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 신천지를 지배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아니였다. 간도혁명을 움직이는 일부 지도자들의 일본새와 사고방식 가운데는 우리의 불만을 자아내는 점도 없지 않았다.

우리를 제일 놀라게 한 것은 동만지방 혁명가들의 활동에서 열병처럼 만연되고 있던 좌경바람이였다.

좌경병은 유격근거지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명월구, 소사하 회의들에서 유격근거지 창설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는 이미 그 형태를 완전유격구, 반유격구, 활동거점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형태 설정에서 균형을 잘 보장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동만지방의 일부 열성 공산주의자들은 행방지구 형태의 완전유격구를 건설하는 데만 몰두하고 반유격구나 활동거점을 창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낯을 적게 돌리고 있었다. 초기에는 왕청에서도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근거지만 건설하였다. 소왕청 유격구역만 보더라도 오늘의 우리 나라 한개 군 면적과 맞먹는 땅덩어리가 모두 혁명세력이 관할하는 해방지구 형태의 소비에트구역으로 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완전유격구를 소비에트구역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넓은 땅에다 공농정권을 상징하는 소비에트깃발을 띄워놓고 간부들은 ≪혁명!, 혁명!≫하면서 무사분주하게 돌아갔다. 유격구역 밖에 나가서 싸움은 별로 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독재니, 무산자사회건설이니 하는 허공 중에 뜬 구호만 연방 외치면서 얼렁얼렁 하루하루를 보냈다. 기념일이 오면 병실 마당이나 운동장 같은 데 모여 러시아식 댄스도 하고 메이데이가도 불렀다. 어떤 날은 동만특위와 현 간부들이 한 데 모여서 목청을 돋구어가며 논쟁도 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우리도 그해 봄을 덩덩해서 보냈다. 그러나 점차 유격구 사업에서 발로되고 있던 일련의 좌익소아병적인 편향도 포착하게 되였고 그것을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와 전술도 모색하게 되였다.

유격구역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초창기에는 왕청근거지에만도 수천명의 피난민과 망명자들이 와 있었다. 훈춘, 연길, 화룡의 실태도 마찬가지였다.

부침땅이 적은 산골 안에 수천 명이 모여들어 와글와글하니 먹을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전부가 콩죽을 먹었다, 망에 콩을 갈아서는 쌀을 좀 넣고 죽을 쑤어 먹곤 하였는데 그것도 있을 때는 더러 타발도 하였지만 없을 때는 양잿물에 끓인 송피를 두드려서 송기떡을 만들어 끼니를 에우든가 고사리, 닥지싹, 도라지, 더덕, 둥굴레뿌리 같은 것을 삶아서 먹었다. 그렇게 하고서는 혁명가를 부르고 주먹을 흔들면서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친일파를 타도하고 놀고 먹는 기생충의 무리들을 타도하라고 연설하는 것이 초시기의 근거지 생활이였다.

물론 소소한 전투도 여러 번 하였다, 경찰서를 습격하고 후방물자를 실은 마차수송대도 들이치고 유격구역에 침습해오는 ≪토벌대≫를 제끼고 무기를 빼앗아내기도 하였다. 승리하고 돌아오면 인민들은 깃발을 들고 만세도 불렀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투는 많이 하지 못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초를 서든가 피난민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매일매일을 보냈다.

땅덩이는 컸으나 총도 적고 무장인원도 적다나니 유격대원들은 총을 몇자루씩 나눠가지고 근거지를 보위하는 데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우리가 무장대오를 늘리려고 하면 무슨 서기요, 위원이요 하는 사람들이 겁에 질린 소리로 혁명군은 통일전선군대가 아니니 노동자, 농민의 정수분자들만 흡수하여야지 아무 사람이나 망탕 받아들이게 되면 오합지졸의 무리가 된다고 하면서 한사코 막아나섰다. 그 당시는 항일유격대가 소비에트구역 안에 있는 무장력이라는 데로부터 그 명칭도 공농유격대라고 하였다. 공농유격대란 노동자, 농민의 군대라는 뜻이다.

몇개 중대밖에 안 되는 유격대역량으로 몇 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커다란 땅덩어리를 사수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에 부치는 일이였다. 방어밀도가 설피니 일단 ≪토벌≫만 시작되면 적이 우리의 방어진을 뚫고 종심 깊이에까지 쳐들어왔다. 그러면 수천 명 인민이 봇짐을 이고지고 피난을 가느라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이런 피난소동이 매일과 같이 유격구 사람들을 들볶았다.

좌경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치 해방지구 영토의 크기가 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표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적아의 역량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도 없이 주관적인 욕망만을 앞세우면서 터를 넓게 잡고 유격구역을 고수하는 데만 전념하였다. 그들은 지어 유격구역과 적통치구역을 ≪적색구역≫, ≪백색구역≫이라는 간판 밑에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반동군중≫, ≪양면파군중≫이라는 딱지를 붙여가면서 적구 인민들과 중간지대 인민들을 함부로 의심하거나 배척하였다. 국내 인민들도 역시 ≪반동군중≫의 대접을 면치 못하였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리였다.

≪적색구역≫에서는 여성들이 단발머리를 함으로써 ≪백색구역≫과의 차이를 표시하였다. 말도 글도 노래도 학교교육도 출판물도 적백이 서로 달랐다. ≪백색구역≫에서 ≪적색구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단속을 했고 취조를 한 다음에도 집으로 잘 돌려보내주지 않았다.

≪백색구역≫에서 오는 사람은 덮어놓고 적의 간첩으로 치부하라는 상급의 지령이 아동단 조직에까지 떨어졌다. 왕청현당의 일부 사람들은 소왕청골 안에 있다가 도시로 내려간 사람들에 대하여 늘 악의를 품고 있었다.

한번은 동일촌에서 망원보초를 서던 적위대원들이 소를 사려고 유격구에 온 대두천의 농민을 붙잡아다가 심문한 일이 있었다. ≪백색구역≫에서 수상한 농민 한 명이 나타나 적위대의 심문을 받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현당의 좌경분자는 그 농민이 스파이일 수도 있으니 바른대로 대지 않으면 주리를 틀어서라도 정체를 실토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주리를 틀어도 농민은 스파이가 아니라고만 대답하였다. 그 농민은 사실 스파이도 아니였고 주구도 아니였다. 그러나 좌경분자들은 농민이 가지고 온 현금을 압수하고 불문곡직으로 악행을 가하였다.

왕청에서 다녀간 공청사업을 해본 최봉송은 언제인가 좌경으로 인하여 빚어진 유격구 시절의 비사들을 회고하는 좌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좌경이라는 말만 들으면 초기 유격구 시절이 자주 앞에서 서물서물 합니다. 간도에서의 좌경이 정말 지독했습니다. 한번은 유격대원들이 왕청령에서 일본군의 소금달구지를 노획해가지고 소왕청으로 끌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거지가 생긴 초창기이니 아마 수령님께서 남만진출을 하실 때 일 것입니다. 달구지꾼은 삯일을 하여 그날그날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최하층의 조선사람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좌경분자들은 ≪양면파군중≫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를 죄인처럼 다스렸습니다. 일본놈의 소달구지를 끌었으니 역적이라는 거지요. 유격구밖에 있는 사람들이 유격구를 좋게 볼 수 없었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였습니다.≫

적아를 구별하지 않고 기본군중까지도 서슴없이 처형하는 이와 같은 무지한 망동은 다른 현의 유격구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저주받을 행위들이 모두 혁명이란 신성한 간판 밑에서 거리낌없이 감행되어 항일을 하겠다고 따라나섰던 수많은 혁명군중을 ≪백색구역≫으로 밀어던지는 가슴아픈 결과를 빚어낸다는 데 있었다.

최봉송

유격구의 좌경분자들은 지어 온성 땅에서 적의 ≪토벌≫에 희생된 부모의 제사를 지내려고 상경리에 온 이치백노인의 친척까지도 ≪반동군중≫이라고 하면서 붙잡아가는 추태를 부렸다.

이런 행위를 목격할 때마다 나는 온몸과 넋으로 참을 수 없는 수치를 느꼈다. 만일 어떤 공산주의자가 반동이라는 감투를 씌워 무고한 백성을 마음내키는 대로 처형한다면 그는 벌써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특급범죄자이다.

그런데 우리가 왕청에서 유격구 생활을 할 때만 하여도 이런 특급범죄자들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특급혁명가≫로 행세하면서 군중을 아무렇게나 망탕 다스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소비에트만 가지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근거지도 고수하고 혁명도 발전시키자면 폐쇄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활동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얻어낸 결론이였다. 말하자면 유격구 사수에만 매달리는 근시안적인 활동방식으로부터 벗어나 큰 정예부대를 꾸려가지고 자유자재로 기동하면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이자는 것이다.

군대가 본격적인 군사작전에로 이행하자면 근거지 방위에서 안고 있는 부담을 줄여야 했는데 이 부담을 줄이

→

왕재산회의장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는 하나의 방책이 바로 완전유격구 주변의 광활한 지역에 반유격구들을 대대적으로 늘리며 이러한 반유격구들이 유격구를 옹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반유격구를 창설하는 데서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았다.

나는 중국관내에서의 유격구건설경험을 참고할 목적으로 동장영과도 여러 번 진지한 담화를 하였다.

1931년 가을 중국 강서성 서금에서는 중화소비에트 임시정부수립을 선포하고 소비에트구역을 창설하였다. 동장영의 말에 의하면 중국혁명의 수뇌부가 집결되어 있는 소비에트중앙구는 그 면적이 대단히 넓고 주민도 수백 만을 헤아리며 무력도 몇개 군을 이룰 만큼 막강하다는 것이었다. 동장영 자신도 하남성에서 소비에트 구역을 창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홍군은 10여만 명에 달하였고 그 관할지역은 강서성 남부로부터 광동성 북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영토와 인구상으로 볼 때 어지간한 한개 독립국가와 맞먹는 중국의 소비에트구역 건설경험을 두만강 연안에 그대로 이식할 수 없다는 것과 간도를 활동기지로 삼고 있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의 책원지를 튼튼히 사수하고 유격전쟁을 판이크게 벌일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은 완전유격구 주변과 북부조선 일대에 반유격구를 창설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더욱 굳히게 되었다. 반유격구 창설의 필요성은 무장투쟁의 실천 속에서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었다. 광대한 영역을 사수하자니 힘이 달렸고 힘이 달리는 그 타개책을 빨리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만일 유격전을 해보지 않고 고전이나 뒤적거리며 러시아 볼세비키들이 어떻게 했소, 중국 서금의 경험이 어떻소 하는 식으로 탁상공론만 하였더라면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근거지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유격근거지가 바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그 창설을 그토록 절감하고 빨리 다그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반유격구 문제는 근거지에 대한 단순한 형태상의 고찰이 아니였다. 그것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혁명에서 주체적 대를 세우는가 못 세우는가 하는 사상적 입장 문제였으며 좌경에서 벗어나 지난날 ≪양면파군중≫이라고 하면서 배척했던 광범위한 인민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보는가 보지 않는가 하는 군중관점 문제였고 그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결속시키는가 못 시키는가 하는 혁명역량편성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반유격구란 우리도 통치하고 적들도 통치하는 지역, 형식상으로는 적의 통치지역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의 관할지역으로서 항일유격대에 대한 지원조건도 지어주고 그 후비원천을 비롯한 혁명역량도 키워내며 적구와 유격구 사이에서 중간 연락소의 역할도 담당하는 그런 곳을 말한다. 좀더 형상적으로 표현하면 낮에는 적들이 통치하지만 밤에는 우리가 관할하는 그런 지역을 말한다.

혁명근거지 건설에서 반유격구 형태는 우리의 투쟁실정에 맞는 것이었다. 이런 형태는 다른 나라들의 유격전쟁 경험에도 별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 혁명의 발전노정은 반유격구 창설을 정상한 과제로 내세웠다.

우리는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며 항일무

왕재산밀영

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급속히 앙양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1933년 3월 중순 함경북도 온성군 왕재산 일대에 진출하였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며 조국해방을 이룩하려는 것은 항일대전을 선포한 그날부터 우리가 시종일관 견지해온 전략적 목표였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는 불변의 신념이었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육읍 일대를 비롯한 북부조선 지역에 반유격구를 꾸리는 것이었다. 반유격구를 잘 꾸려놓으면 유격구건성에서 나타나고 있은 이러저러한 좌경적 편향도 능히 청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셋째섬에 활동기지를 두고 있는 왕청대대 2중대 성원 40명과 각 중대들에서 선발된 10명의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로 국내진출 대오를 편성하고 박태화소대장과 그밖의 몇몇 대원들로 구성된 선발대를 온성지구에 파견하였다.

그 당시 동만당조직의 책임적인 자리에 앉아 있던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국내로 나가는 데 대하여 몹시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저지시키려고 각방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들은 중국 연내에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는 것은 민족주의적인 ≪조선연장주의≫ 경향이라고 비난하였으며 1국1당제원칙에 모순되는 행위이므로 국내진출도 애당초 단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민족적 임무에 충실한 것이 곧 국제주의적 임무에도 충실한 것으로 되면 조선의 혁명가가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것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라는 자기나름의 배짱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논박하였으며 변함없이 국내진출을 준비하였다.

이런 때에 항일유격대의 국내진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국내와의 연계를 위하여 온성지방에 나갔던 2중대의 대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자마자 김성도라는 사람에게 체포되어 동만특위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그 당시 2중대장은 안기호였고 정치지도원은 최춘국이었다. 그들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허둥지둥 마촌에 뛰어와 내 앞에서 중대지휘관들도 모르게 유격대원을 함부로 붙잡아간 김성도의 월권행위를 두고 의분을 터뜨렸다.

성미가 첫날 색시처럼 얌전하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 남의 흉이라고는 좀처럼 보지 않는 최춘국이 ≪외눈깔왕가≫라는 별명까지 입에 올리며 김성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지만 나는 함구무언으로 앉아서 그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였다. 김성도에 대한 파악이 별로 깊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란 그가 공청 동만특위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다가 동만당특위로 갓 소환되어 온 사람으로서 각 현으로 순시를 다니는 중이라는 것뿐이었다. 동만당 조직에는 상급조직의 간부들이 하부조직을 돌아다니며 지도사업을 하는 것을 순시라고 하였다.

나는 최춘국이 김성도를 이름 대신 상스러운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 마음에 걸려 그를 엄하게 꾸짖었다.

≪춘국동무, 동무는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이름 대신 별명을 부르는 고약한 버릇을 배웠소? 김성도라는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는 탈선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무한테는 그래 그의 인격을 존중해줄 만한 아량도 없단 말이요?≫

최춘국은 비판 앞에서 허심한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담고 송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 언행이 조금이라도 불손했거나 무례했다면 용서해주십시오.≫

≪유격구도 인간들이 모여사는 곳이니 별명이 없을 수 없겠지. 그런데 그 별명은 너무도 야비하구만. 외눈깔이라고 하다니...≫

나는 김성도가 2중대의 대원을 체포해간 것보다 당장은 왕청 사람들이 그를 ≪외눈깔왕가≫라고 부르는 사실에 더 화가 났다.

어째서 김가를 왕가라고 하는가고 물으니 최춘국은 조선사람인 김성도가 중국사람 냄새를 너무 내고 간부들 앞에서 지나치게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꼬와서 간도 사람들이 그에게 ≪왕가≫라는 성을 붙여준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동만특위로 가던 길에 현당에 잠깐 들렸더니 거기서도 김성도를 이름 대신 ≪외눈깔왕가≫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현당 사무실에서 이용국이 나에게 들려준 말에 의하면 김성도는 1927년에 벌써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화요파 만주총국의 어느 세포위원을 하다가 일본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어 매도 맞고 감옥밥도 먹어본 노당원이라고 하였다. 감옥에서 풀려나온 후에는 재빨리 중국당에 전당하여 특위급 간부로 승진되었는데 곯아빠진 한쪽 눈의 허물을 감추느라고 그러는지 늘 색안경을 끼고 다부산자 차림으로 다닌다는 것이었다.

이용국은 김성도를 ≪날아가는 까마귀발에 버선이라도 신길 수 있는 수완가이고 변설가≫라고 평가하였다.

(내일 계속)

소왕청 마촌의
유격대지휘부 귀틀집

전민의 사랑과 지지성원을 받는 우리 군대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4월 23일

위대한 선군정치가 구현되고 있는 오늘 우리 나라에는 군대에 대한 인민의 혈육의 정이 날을 따라 뜨거워 지고 인민군대를 물심량면으로 도와 주는 미풍이 더욱 활짝 꽃 펴나고 있다. 우리는 온 사회에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 원군기풍이 차념치게 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나아가는 사회주의군사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잘 도와 주어야 합니다.≫

혁명군대의 위력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힘의 상징이다.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인민만이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도 쳐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지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전진시켜 나갈수 있다.

인민의 지지와 성원을 떠난 강군이 없다. 우리 인민군대가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짓부시며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고 있는 무적의 힘의 원천도 인민의 지지성원에 있고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위력한 무기도 군민단결에 있다.

군대를 사랑하고 적극 원호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함께 굿굿이 이어 져 온 전통적미풍이다. 우리 인민은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나날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에서 필승의 신념을 얻으며 군대를 성심성의껏 원호하였고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원호하였다. 우리의 영웅적인 항일혈전사와 반미투쟁사에는 군대의 불멸의 위훈과 더불어 인민의 원군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새겨져 있다.

군대를 사랑하고 원호하는 기풍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선군시대에 더욱 높이 발양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이 있고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진리를 뼈와 살로 간직한 인민이다. 지금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군대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것 지어는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미풍이 보편적인 소행으로 되고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이 군복을 입고 어머니가 섰던 초소에 딸이 서는 총대가정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혁명의 총대를 틀어 잡고 수령결사옹위의 전초선에 선 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여기면서 성심성의로 원호하며 바로 거기에서 참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아름다운것이다.

군민일치의 대화원이 펼쳐 지고 혁명적원군미풍이 활짝 꽃 펴나고 있는것은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군대가 있지만 위대한 백두령장을 모신 우리 나라에서처럼 온 사회에 군대를 사랑하고 도와 주는 혁명적인 원군기풍이 차넘치는 나라는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가 군민일치에 있다는것을 밝히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군민관계강화에 깊은 관심을 돌려 오시였다. 원군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의 자그마한 소행까지도 높이 평가하고 내세워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혁명적원군미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 있다.

온 사회에 혁명적원군미풍이 활짝 꽃 펴나고 있는것은 사회주의 내 조국의 크나큰 자랑이다. 이 혈연적인 군민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나가는 여기에 위대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는 길이 있다.

오늘 우리 나라를 둘러 싼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다. 사회주의보루를 지켜 가는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해 피를 물고 달려 드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최근시기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고 있다. 전쟁의 검은 구름이 몰려 오고 있는 오늘과 같은 시기에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뉴대를 강화하는것은 더없이 중요한 사업으로 나서고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원군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위업을 세기를 이어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야 한다.

우리 군대제일주의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는 강성대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철추를 내리는 투쟁의 무기이다.

우리 군대제일주의정신에는 인민군대의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이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조가 새겨 져 있고 그 어떤 강적도 때려 부시는 백두산혁명강군을 가지고 있는 크나큰 긍지가 넘치고 있으며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타승할 때까지 총대를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견결한 반제투쟁정신이 맥박치고 있다. 70성상 백두산혁명강군과 함께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 온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인민군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 나고 있다. 우리는 선군시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담고 있는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을 보검으로 틀어 쥐고 21세기 새로운 진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하며 투쟁과 생활의 갈피마다에서 백두산혁명강군찬가가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제일주의정신에서 핵은 우리 장군제일주의, 우리 최고사령관제일주의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는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무비의 담력, 강철의 의지와 뛰여 난 령군술을 지니신 천출명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다. 오늘 적들이 우리 인민군대의 무적의 기상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것은 우리 혁명무력을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끌고 계시기때문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사업과 생활의 순간순간마다에서 높이 발휘해 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다지는것을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제1차적인 중대사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는 사회주의조국의 가장 믿음직한 보위자이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군대는 오늘 총대로 사회주의조국의 안전을 금성철벽으로 지키면서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있다. 간고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이룩된 승리마다에 병사들의 위훈이 새겨 져 있고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 인민군군인들이 흘린 구슬땀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사회주의조국의 안전이 있고 인민의 자주적운명과 행복한 미래도 있다는 진리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한다.

원군이자 애국이다. 우리는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틀어 쥐고 군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밀고 나가는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우리가 마음 놓고 사회주의건설도 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것은 인민군군인들이 조국의 방선을 굳건히 지켜 서 있기때문이다. 우리는 조국애로 심장을 불 태우며 사회주의방선을 철벽으로 지키고 있는 인민군군인들을 늘 생각하며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훈련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온갖 지성을 다 바쳐야 한다.

원군의 최고형태는 참군이다. 선군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군대가 되는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다. 청년들은 인민군대에 복무하는것을 가장 영예롭고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인민군대에 적극 탄원입대하며 군사복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군민일치사상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적투쟁정신과 기풍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확고히 실현하는 여기에 혈연적인 군민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참다운 길이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가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언제나 거울로 삼으며 모든 사업을 인민군대식으로 대담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온 나라 모든 곳에서 ≪우리 초소 - 우리 공장≫, ≪우리 초소 - 우리 농장≫, ≪우리 초소 - 우리 학교≫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는데서 각급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급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군민일치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 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원군기풍을 발휘하는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와 근로자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적극 내세우며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원군기풍이 차넘치고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뉴대가 백방으로 강화될 때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군대로서의 존엄과 위력을 힘 있게 떨치게 될것이다.

모두다 우리 당의 군민일치사상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에 혁명적원군미풍을 더욱 활짝 꽃 피우자. (끝)

반미항전으로 민족공멸을 막자

북을 핵공격대상으로 정한 부시호전집단에 의해 한반도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짙게 드리웠는데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북과 남이 따로 없이 온 민족이 멸살당하게 된다는 건 불보듯 뻔하죠. 민족이 있고야 통일도 필요한 거잖아요. 민족이 다 죽은 다음에야 통일은 해서 뭘하고 통일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 하늘아래 이 땅에서 통일하고 행복을 누리자면 전민중적인 반미항전으로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국놈들을 이 땅에서 내쫓아야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엔 ≪반미항전으로 민족공멸을 막자≫ 유진명씨 모시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유진명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서 하루빨리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에 역행하면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반미항전을 가열차게 벌여서 민족공멸을 막아내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해가지고 이렇게 모셨는데요.

유진명 : 아시겠습니다만 한반도정세는 미국의 무모하고 광란적인 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언제 핵전쟁의 불구름이 솟아오를지 모를 정도로 매우 험악해지고 있어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을 ≪악의 축≫으로 매도해온 부시집단은 북을 ≪핵공격대상국≫으로 규정하고 반테러전쟁을 한반도에로 확대하며 핵선제타격도 불사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위협은 내일의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적인 것으로 되고 있어요.

사회자 : 앞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우리 민족은 전쟁을 바라지 않잖아요. 남과 북의 두 지역에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한민족안에서 총을 맞대고 싸울 근거로 될 수 없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이 자위적인 국방력을 강화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진명 : 그렇습니다. 북이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건 이 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미국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한 건데요. 북의 자위적 국방력과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이 없었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미국 호전광들은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렸을 겁니다. 정말 북의 선군정치야말로 우리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애국애족의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고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해야 할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자신이고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민족공멸을 막아줄 수 없는 겁니다.

사회자 : 사실이 그렇죠. 이 땅에서 핵전쟁이 터지면 피해를 당할 사람도 우리 민족이고 잿더미로 될 땅도 우리의 삼천리강토 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에 한한 문제도 아니고 북에 한한 문제도 아니며 어느 일방의 사상과 제도에 관한 문제도 아니죠.

유진명 : 이건 남과 북의 지역적 차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는 7천만 우리 민족의 전망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핵전쟁의 참화는 남과 북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미국호전광들이 성능무기로나 핵무기로나 북을 공격하면 북은 부득불 자위적인 반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될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과 미군기지들은 북의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받아 불바다로 되고 말거예요. 결국 이 땅은 어차피 미군과 미군기지들때문에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게 될거고 그것은 지난 세기 50년대의 전쟁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국적인 것으로 될 겁니다. 핵전쟁으로 전쟁의 화염이 깃든 잿더미위에서 사상과 제도를 논하고 소속과 당파를 가를 사람도 없을 거고 설사 그것을 논하고 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서는 사상과 이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가 논의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민중은 한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미국의 이같은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공멸을 막아야 할겁니다.

사회자 : 그러면 현시기 민족공멸을 막기 위한 반미항전을 과감히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죠.

유진명 :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땅에 배비돼 있는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살인무기들과 그것으로 장비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의 파고를 더욱 거세차게 높여나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

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은 우리 민중에는 벗도, 보호자도 아니고 침략자이고 전쟁의 억제력이 아니라 전쟁, 핵전쟁의 화근입니다. 나라안에 미국의 핵무기와 양키무리들을 두면 우리 민족은 **질 것도 없고 **질 것도 없구요, 재난밖에 당할 것이 없어요. 오늘 한반도에서 민족공멸의 위험이 조성된 것도 이 땅이 미국의 핵기지로 되고 있기 때문이예요. 때문에 각계 민중은 이 땅에 배비돼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그것으로 무장한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항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사회자 : 그리고 말이죠. 이 땅에서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형태의 한미합동군사연습들은 한반도에서 항시적인 핵전쟁의 근원으로, 민족공멸의 근원으로 되고 있잖아요.

유진명 : 옳은 말씀이예요. 1천여개의 핵무기가 배비돼 있는 이 땅에서 각종 형태의 북침전쟁연습이 강행될때마다 한반도에 언제 어느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어 민족의 생존은 위협당하고 있어요. 얼마전 미국이 이 땅의 최전연을 비롯한 전지역에서 대규모 한미통합군사훈련을 벌인 것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죠.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해 벌인 이번 전쟁연습에는 4만3000여명의 미군, 65만여명의 국군 등도합 70만의 대병력과 최신예 첨단장비들을 총투입해 강행됐는데요. 이것은 핵선제공격을 노린 계획적이고 모험적인 북침전쟁연습이였어요. 이같은 사실은 미국이 이 땅에서 벌여놓고 있는 각종 형태의 북침전쟁연습책동을 영원히 중지시키기 위한 반미항전을 떠나서는 우리 민족을 핵참화에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각계 민중은 이 땅에서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형태의 북침전쟁연습을 영원히 중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하는거죠. 민족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한미간에 체결된 침략적이고 강도적인 모든 군사협정들과 조약을 폐지시키기 위한 투쟁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유진명 : 한미간에 체결된 이른바 군사협정들과 조약들은 다 미국의 침략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문서예요.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전력증강책동은 물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모든 침략적인 군사행동들이 한미간에 체결된 이른바 군사협정들과 조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민중은 한미간에 체결된 모든 침략적이고 강도적인 군사협정들과 조약들을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야 할겁니다.

사회자 :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반미항전으로 민족공멸을 막아내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3일~24일

산초판사 ≪한국≫이 되지 말아야한다

지금 민중들속에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서 전쟁광기를 부리는 부시를 현대판 돈키호테로, 부시의 미친 짓에 무작정 추종하는 이회창역적을 현대판 산초판사로 비하하면서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산초판사 ≪한국≫으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거라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산초판사 ≪한국≫이 되지 말아야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철씨 모시고 임현아씨 얘기드리겠습니다.

임현아 : 안녕하십니까.

요즘 항간에서는 이회창을 가리켜 산초판사 이회창이라고 하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산초판사 ≪한국≫이 된다면서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철 : 스페인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 나오는 산초판사는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미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돈키호테에게 미련할 정도로 아주 충실한 자거든요. 평화를 바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악의 축≫이니 뭐니 하면서 전쟁바람을 일으키며 다니는 현대판 돈키호테 부시를 할애비처럼 모시는 이회창을 가리켜 현대판 산초판사 이회창이라고 하는 말들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임현아 : 주지하다시피 현시대는 반미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철 : 그렇죠. 냉전이 종식된이후 미국의 일극화책동이 부시정권에 들어와서 더욱더 노골화되기 때문에 지난해 미국과 행동을 일치하던 유럽연합을 비롯한 나라들과 지역들에서도 반미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80년대초부터 분출되기 시작한 반미감정이 오늘은 막을 수 없는 열풍으로 거세게 폭발하고 있잖아요. 노근리에서 감행한 미군의 양민학살사건이 파헤쳐진 것을 기화로 경향 도처에서 묻혀졌던 미군만행자료들이 생동한 현장사실들로 확인됐었고 특히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를 계기로 이 땅의 각계 국민들속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열망이 비상히 고양되면서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시의 ≪악의 축≫망언과 이 땅에 대한 행각을 계기로 폭발한 반미열풍은 ≪한국민≫들이 이젠 미국의 진면모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예속민의 비애를 더이상 묵묵히 감수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연한 자주의지의 분출이라고 봅니다.

임현아 : 그런데 산초판사 이회창이 미국에까지 찾아가서 돈키호테부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별의별 미친 짓을 다하고 다닌 걸 보면 확실히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벗지 못한 것이 알립니다.

이 철 :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거든요. 오늘날의 ≪한국민≫은 한갖 미국의 조롱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민≫은 미국이 내세우는 매국세력이 집권해서 반민족적인 정치를 하고 미국이 이 땅을 군사기지화하고 동족인 이북을 주적으로 몰아붙여도 그리고 수천수만의 양민이 미군에 의해 살육당해도 말한마디 못하고 눈물을 삼켜야했던 존재가 아니죠. 지난날에는 우리 국민이 미국의 조롱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미국에 빌붙어 생명을 유지해보려는 이회창과 같은 역적이 우리 국민의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임현아 :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친미사대매국근성이 골수에 꽉 들어찬 이회창과 같은 자가 권력의 감투를 쓰게 되면 남북관계개선도 6.15공동선언이행도 바랄 수 없게 되고 우리 민족이 미국의 핵전쟁의 희생물로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철 :옳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각계 민중은 반이회창투쟁을 반미투쟁과 결부시켜서 힘차게 벌이고 있는데요. 이 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회창을 한나라당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아예 매장시켜버려야 할겁니다.

임현아 : 그렇습니다. 이회창의 말로를 통해 이 땅의 정치인들이 친미사대의 길은 곧 구렁텅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철 : 전국민적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정치인들부터가 이회창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미구호를 높이 드는 것이 우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아 : 정치권의 세대교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 철 : 그렇죠. 반미구호를 들고 미국에 대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정치인이라야 새 세대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온 국민이 반미를 외치는데 이걸 외면한다면 정치는 고사하고 보따리장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기댈데가 있는데야 뭐 무서울게 있겠습니까. 아직도 미국을 거인으로 보면서 거기에서 뭘좀 얻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임현아 : 그런 구시대적 정치인들에게 이나라 정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봐요. 얼마전 미국무부의 고위관리까지도 ≪한국≫에 새 세대의 정치지도자가 나와서 한미관계를 새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철 : 그는 ≪한국≫의 선거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진 새 세대 정치지도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변화에 대한 욕구를 담아내고 있다고 해석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새 지도자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젠 우리 눈치를 보기 시작한거죠. 이제 다시 미국에 빌붙어 뭘좀 얻어보겠다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이회창역도가 권좌에 올라앉으면 미국은 그 전날처럼 우리 국민을 가리켜서 또다시 ≪들쥐≫라고 모독할게 뻔합니다.

임현아 : 그러자면 운동권안의 유권자들을 비롯해서 젊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해 반미열풍을 더욱 거세차게 불러일으키며 이회창에게 표안주기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철 : 지당한 말씀입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려면 젊은 유권자들이 적극 나서서 우선 한나라당경선에서부터 이회창이 대선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반이회창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곧 미국의 종노릇을 한 ≪한국≫의 과거사를 결산 짓는 중요한 고리이고 반세기이상이나 미국에 억눌려 살아온 우리 부모들의 원한을 갚는 길입니다. 이제 다시 미국에 아부아첨하는 이회창과 같은 친미사대매국노가 권좌에 들어앉는다면 세상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똑똑치 못한 돈키호테 부시의 미국을 따라다니는 산초판사 ≪한국≫이라고 말이죠.

임현아 : 산초판사 ≪한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모든 국민은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새 세대 정치인을 자기 손으로 뽑아야 한다, 참으로 뜻이 깊은 말씀이네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회창역적이 절대로 대통령감투를 쓰지 못하게 해야 하겠죠. 이회창에게 찍어주는 건 반민족반통일 공모죄로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3일~24일

부시정권 기관지

반민족반통일과 친미친일사대매국행위에 발벗고 나서는 조선일보의 작태는 한쪼각의 고깃덩이를 얻어 먹기위해 꼬리를 저으며 주인에게 아양을 떠는 삽살개를 방불케하고 있다 하겠는데요. 이같은 조선일보에 대해 지금 각계 민중들은 물론 언론계에서도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를 가리켜서 ≪부시정권의 기관지≫, ≪미국일보≫, 상전에게 고자질 잘하는 ≪고자신문≫이라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부시정권 기관지≫라는 제목으로 김혜정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계를 비롯한 국민각계에서 친미사대매국행위를 일삼는 조선일보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있는데요. ≪한겨레≫신문도 ≪부시정권의 기관지≫라는 제하로 조선일보를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지금 이 땅에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의 오만한 횡포를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는데 언급하고 오만한 부시정권의 기관지(대외기관지, 대변지), 그의 기관지가 끼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냥 스쳐지나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부시정권의 기관지는 ≪한국≫에 있다. 바로 조선일보이다.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를 본격적으로 유포시킨다는 점에서 부시정권의 기관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한국≫기자단의 한 사람으로 미국의 여러 단체들을 방문했던 어느 한 기자는 미국인들이 주로 접촉하는 언론사가 조선일보라고 했다. 언론단체들만 그럴까. 그렇지 않다. 미국관리들은 ≪한국≫여론을 청취한답시고 조선일보 사람들이나 극우 인물들만 만나곤 한다. 친미사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미국관리들을 만나는데 적극적일뿐 아니라 실제로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력있는 자들이다. 부시가 그동안 보여준 일련의 오만한 발언과 행태는 우리 내부의 친미사대주의자들의 정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설은 미국에 아첨하려는 조선일보의 북에 대한 발상과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 등은 학자들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비애를 토로하게 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미국을 사모하고 추종하는 정도가 아니다. ≪한국≫정부를 욕하고 북을 계속 테러범으로 몰기 위해 환장을 했다. 조선에도 폭격을 하라는 말인가. 조선일보는 워낙 주인(일본, 미국), 주인한테 미주알고주알 고자질 하다보니 ≪고자신문≫이 되어 버렸다. 부시의 연두교서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주한미군이 용산기지내 아파트건설문제에 대해서도 미군측을 지지한 건 오직 이 신문뿐이었다.≫

민의를 반역하는 언론지의 운명, 민족반역자의 운명과 달리 될 수 없죠. 조선일보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할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3일~24일

광주학살 배후 조종한 미국, 민간법정에 세운다

광주학살 책임규명 ≪5.18시민법정 추진위≫ 발족

민간법정에서 반민족 · 반통일 혐의로 조선일보에 유죄를 선언한 시민단체들이 이번에는 미국을 민간법정에 세워 5.18 광주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5.18시민법정 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윤영규 외6인)를 발족하고 다음달 18일 전남도청에서 민간법정을 개최해 미국이 광주학살에 개입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석태 변호사는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배후조종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기존의 실정법으로는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해 민간법정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민간법정의 성격을 지니지만 국내와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시민의 힘으로 외세개입을 막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법정 추진위는 5.18민간법정에 대해 △시민이 추진위원과 고발인, 배심원이 되는 시민법정 △증거에 기초해 유무죄를 가리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진실법정 △외세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고 민족자주의 뜻을 모으는 자주 법정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민간법정의 재판부는 최병모 변호사,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여성대표 1인이 맡았으며 검사, 변호인단, 배심원으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들이 참여하게 된다.

피고는 카터 전 미대통령, 글라이스틴 주한 미대사, 위컴 주한 유엔군 한미연합사령관, 머스키 미 국무장관, 홀부르키 미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광주학살 당시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다.

이들 피고에게는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주어지며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재판에 참석치 않을 경우 재판부가 선정한 변호사가 피고인들을 변호하게 된다.

민간법정 추진위는 △피고인들이 신군부의 광주유혈진압작전을 사전에 승인 · 공모하여 시위군중을 살상한 점 △신 군부의 증원 요청을 승인하고 항공모함을 배치하여 도청진압작전을 공동 실행한 점등을 들어 피고인들을 기소한다고 밝혔으며 △광주학살의 배후를 조종하고 한국의 내정에 간섭한 미국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법정 추진위는 이날 공식 채택한 ≪5.18 민간법정 헌장≫에 근거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장 제2조 내란죄, 내란목적 살인죄,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미국은 내정간섭행위와 헌장 제 3조 제2항에 의한 피고인들의 행위 및 피고인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 ,왜곡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 경 공식공소장, 출두요구서를 전달하고 11일에는 광주학살공모규탄 대중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재판이 끝난 후에는 추진위를 광주학살 진실조사위원회로 개편하고 미국의 학살 책임과 관련된 조사연구 활동을 벌이며 판결내용에 대해 미국에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국제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1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선일보 민간법정에서 내린 유죄판결과 관련 조선일보가 ≪반민족적 언론 조선일보 유죄≫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한 한겨레신문(1월 31일자)을 고소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만큼 이번 재판이 5.18 광주학살 미국 개입에 대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윤희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25

용산기지를 서울시민의 품으로

용산미군기지 실천단, 10차 결의대회

≪이곳은 서울시 용산구가 아닙니다.
U.S의 Califonia입니다.≫

25일 오후 2시 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실천단 연석회의 회원들이 10차 결의대회를 가진 남영역 삼거리 성남극장 앞에는 용산구가 미국땅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렸다.

전국연합 반미실천단, 청년통일광장, 서울연합, 반미여성회,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등이 소속되어있는 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실천단 연석회의는 작년 9월부터 ≪용산기지를 서울시민의 품으로≫라는 구호를 가지고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일일실천과 월1회의 결의대회를 진행해 왔다.

이날 10번째를 맞이한 실천단 연석회의의 결의대회는 지금까지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진행돼 왔던 것이 자유시민연대의 장기 집회신고로 인해 하지 못하게 되자 직접 용산시민들을 만나자는 생각에서 남영역 사거리에서 개최됐다.

이천재 서울연합 상임의장은 여는말을 통해 ≪오전에 광주학살의 진짜주범 미국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왔다≫며 ≪22년전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한 미국이 아직까지도 이땅에서 주한미군 범죄와 같은 전횡과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한미군에 대해 비판했다.

이천재 상임의장은 ≪민족의 이익을 위해 민족이 단결하여 남북관계를 풀어야할 마당에 정부는 6조원을 들여 F-15 고물비행기를 사들이고 앞으로도 수십조의 혈세가 미국의 군사무기를 사들이는데 쓰일 것이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며 ≪우리 모두가 단결해서 주한미군을 우리땅에서 내쫓고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다음으로 반미여성회 장숙영 사무처장은 ≪동계올림픽 사건 이후에 미국상품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미국언론들은 ≪반짝≫하고 말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F-15K 도입반대 목소리에서 보듯 미국에 반대하는 행동들은 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며 ≪생활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미국상품 불매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용산 아파트 건립규탄 및 용산미군기지 완전 반환 촉구≫의 제목으로 연설에 나선 전국연합 반미실천단 홍순석 집행위원장은 ≪≪지금의 반미감정은 동계올림픽 이후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미국이 저질러왔던 온갖 범죄와 악행들이 우리 국민들 앞에 똑똑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미 ≪반미는 대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홍순석 집행위원장은 ≪지난 LPP회담에서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약속은 슬그머니 빠져버렸다≫며 ≪지난 50년 이상 미군을 내쫓지 못했고 앞으로 더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기필코 용산미군기지를 되찾아 민족자존심을 세울 것≫이라 다짐했다.

홍순석 집행위원장은 또한 ≪미군기지가 있는 곳은 범죄, 환경오염, 개발이 되지 않는 곳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며 ≪이제 미국이 가는 곳은 어디든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모두 힘을 합쳐 미군을 철수시키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의 마지막 순서로 예정되어있던 ≪시민과 함께 하는 물풍선 던지기≫ 순서는 경찰의 불허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참가자들은 이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4/25

샌후란시스코 반전평화시위

20일 미국 서부지역의 해변 도시 샌후란시스코에는 3만5천여명의 평화애호가들이 미션 돌라레스 공원에 모여 부시의 전쟁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미정부의 지원으로 팔레스타인을 무참히 공격해 온 이스라엘의 샤론 정권을 신랄히 비판하는 집회를 가졌다.

크고 작은 4백여 단체들이 공동후원한 이날 집회는 11시부터 언론노조 글로리아라 리바 위원장과 누라 에라켇 버클리대학 팔레스타인지원 정의구현 회장의 사회로 시작, 노조를 비롯 학계, 종교계, 평화운동, 환경운동,국제정의실천운동가 등이 연단에 나와 부시를 규탄하는 정치연설을 진행했다.

강연자들은 부시정권이 전쟁정책을 난발하며 세계를 공포분위기로 몰고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금 이순간도 이스라엘을 지원하여 무고한 팔레스타인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또 미당국이 하루에 1천만달러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세금을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테러행위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전쟁비용으로 낭비되는 국민세금유출을 중단하고 국민복지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전쟁과 인종차별반대(A.N.S.W.E.R) 리차드 베이커 상임위원은 지난 17일 부시대통령은 버지니아 군사연구소에 가진 연설을 통해 새로운 전쟁들을 지속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세력은 우리 시민들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들이 베트남 전쟁을 반대했던 것 처럼 부시의 무모한 전쟁책동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회정의 없으면 평화없다(No Justice, No Peace)≫, ≪부시는 진짜 악의 축≫,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마련하자≫, ≪미국지원 받는 이스라엘은 테러국≫, ≪팔레스타인 양민학살을 중단하라≫, ≪군사예산 줄여서 국민복지혜택 마련하자≫는 등의 피케트를 들고 부시반대, 샤론반대, 전쟁반대를 합창으로 촉구하는 순서들도 이어졌다.

샌후란시스코와 주변도시들로 부터 참가한 시위참가자들은 돌로레스 공원에서 연설, 문화공연, 구호합창등으로 진행된 행사에 참가후 12시30분께 시청 앞 광장을 향해 10리길 행진을 시작했다. 도로변을 꽉 메운 시위군중들은 한인들이 연주하는 사물놀이패, 액스타라 액션 평화악대가 연주하는 행진곡, 각 단체들이 준비한 소수민족문화 악대들의 연주에 맞춰 행군하면서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를 지켜 보는 연도의 시민들은 손짓과 박수로서 평화행진을 격려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주최측은 행진을 마친 2만여명의 시위대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음악순서를 비롯 정치연설, 평화예술공연, 구호제창 등을 진행하면서 2시간동안 반전평화운동을 이끌어 갔다.

로스엔젤레에서는 3백여명이 5대의 버스와 개인자동차로 7시간 걸려 샌후란시스코 평화행사에 참가했다. 통일맞이 나성포럼의 하용진 사무국장, 민들레 육영빈 회원, 새땅소리 사물놀이패 회원들이 참가했다. 샌후란시스코 지역 동포들중에는 이만영 선생과 박신일 선생 등과 함께 청년학생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금요일 밤부터 이틀날인 20일 행사에 참가하고 21일 새벽1시에 로스엔젤레스에 귀가했다.

노길남, 김영희 공동취재반
민족통신 2002/04/21

샌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집회

미션 돌라레스공원에서 출발한 행진대원들을
인도하는 새땅소리 사물놀이패

권력형 게이트 비리근절 위해서 반부패제도개혁 절실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윤태식의 4대 게이트에 이어 최근의 최규선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자칫 ≪게이트 공화국≫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들 게이트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벤처기업 붐을 이용한 정치와 벤처기업간 커넥션의 성격을 갖는 권력형 비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실행위원장 박흥식)의 주최로 열린 ≪4대 게이트의 특성과 제도적 대안≫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4대 게이트가 벤처기업 금융사고로 시작하여 권력형 비리로 옮아갔으며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이 벤처기업과 유착, 이들 벤처기업을 이용하였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맑은사회만들기 이상수 위원(행정학 박사)은 ≪4대 게이트가 모두 ≪벤처기업과 국가 권력기관간의 결탁≫에서 이뤄졌다≫고 규정하고, ≪이 게이트들은 ≪정치자금≫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갖는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정부가 벤처정책을 급조해 주도하는 바람에 사이비 벤처가 양산됐으며, 이들 사이비 벤처가 감시 감독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무분별하게 진입해 벤처비리가 양산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들 사이비 벤처는 정관계 로비를 통해 감독기구와 수사기구를 무력화, 사병화 시켜 검찰 및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으며, 이같은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IMF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정부가 주도한 ≪초법치적 · 반자유주의적 개혁≫이 배경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상수 박사는 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패방지법 등이 제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볼때 추가적인 반부패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이를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 △재산등록시 ≪고지거부≫ 조항 철폐 등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돈세탁방지법의 보완 △정당공천제의 폐지나 정치자금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한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을 주장했다.

문선영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25

공무원노조 합법화하라

정부가 공무원노조 출범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촉구하 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의 결의문과 건의문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 김해시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의를 통해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를 인 정하고 그 대표들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창원시의회는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정당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완전한 노동기본권 인정에 나서야 한다≫라 는 내용의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또 지난 4일 과천시의회도 ≪우리 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라고 지적하고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들의 공무원노조 합법화 촉구 요구에 행자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상의 불이익 등 일정한 제제수단을 갖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특별히 제어할 수 있 는 방법이 없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현진기자
노동일보 2002/04/25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2)

1. 우리는 왜 이 글을 긴급토론자료로 제출하는가
2. 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
3.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과 조직문제
▶ 4. 반제자주역량의 미군 철거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5. 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6. 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7.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 정권의 관계문제
8. 제안 -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

4. 반제자주역량의 미군 철거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남측을 지배 · 수탈하면서 북측을 고립 · 압살하려고 날뛰고 있는 제국주의세력을 그대로 두고서 조선반도의 정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망상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는 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승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남북(북남)을 포괄하는 전체 조선민족의 모든 사회변혁운동은 불가피하게 반제자주화운동의 성격과 임무를 부여받게 될 뿐 아니라 반제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따라서 민족자주위업을 수행하는 운동이 된다.

남측에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위업과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위업은 7천만 조선민족이 민족자주위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완수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운동력을 반제자주역량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민족자주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 가운데 자주강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제기된다. 자주강령은 민족자주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강령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 의미를 반국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국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의 자주성이라고 하면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 · 수탈을 받고 있는 남측에서 제국주의세력을 몰아내는 것으로 국한하여 생각하는 데 이는 반국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해다.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 것은, 남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정치 · 군사적 지배와 경제적 수탈을 제거하는 것과 더불어 북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정치 · 군사 · 경제적 고립 · 압살책동도 제거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남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지배 · 수탈과 북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고립 · 압살책동은 떼어놓을 수 없는 상호연관관계로 얽혀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이 제거되면 다른 한 쪽도 제거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첫째로,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반제투쟁에서 반국적 자기중심주의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남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지배 · 약탈을 제거하고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을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단독으로 수행해야 하고, 또 단독으로 능히 완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현실에서 비켜나간 자기중심주의의 착오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단독적인 역량에 의하여 민족자주위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지배 · 수탈과 북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고립 · 압살책동이 떼어놓을 수 없는 상호연관관계로 얽혀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민족의 자주성 문제를 반국적 관점에서 보려는 자기중심주의이다. 더욱이 그러한 자기중심주의가 민족자주위업을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을 은근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민족자주위업은 민족주체역량을 단위로 하여 완수될 수 있는 위업이지, 민족이라는 사회적 집단에 속해 있는 일부 역량이나 특정 계급에 의해서 단독적으로 완수될 수 있는 그런 위업이 아니다. 민족자주위업은 민족주체역량을 단위로 하여 추진되고 완수되는 위업이므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족대단결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한 치의 착오도 범해서는 안 되며, 민족자주위업 수행에 관하여 전국적 관점을 견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타협이나 양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민족자주위업의 실현 경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올곧게 세워져 있지 못하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자주위업 수행에 대한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전국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민족이 단결된 역량으로 남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지배 · 수탈과 북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고립 · 압살책동을 제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연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민족자주위업이 수행되고 있는 실제 경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만일 남과 북(북과 남)이 힘을 합쳐 일제히, 그리고 일거에 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바람직하게만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기되는 물음은 남측에 대한 지배 · 약탈과 북측에 대한 고립 · 압살책동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제거되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세변화를 총괄적으로 검토해보면, 북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고립 · 압살책동이 먼저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왜 그렇게 보는가? 이 문제는 당위성이 아니라 현실성을 중심으로 고찰해야 풀린다. 오늘 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어떻게 분리 · 포진되어 있으며,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역량은 그 포진구도 안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해야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해답을 얻으려하기 전에 먼저 아래와 같은 전제를 확인하기로 한다.

제국주의세력은 절대로 저절로 물러나지도 않으며 스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이것은 철칙이다. 제국주의세력에게 물러가 주기를 청원 · 촉구한다고 하여 그들이 순순히 물러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제자주화운동을 갉아먹는 독소적 환상이다. 제국주의세력은 민족주체역량의 투쟁으로 제거해야 하며, 또 그렇게 제거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민족자주위업에 관한 모든 논의에서 이 점은 명백하게 전제되어야 한다. 제국주의세력과 반제자주역량 사이에서 승패는 어디까지나 힘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어느 쪽의 힘이 더 우세한가 하는 것이 정세변화의 동향을 파악하는 핵심이다.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는 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은 분산상태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민족자주위업은 반드시 단결된 반제자주역량으로 수행해야 한다.

조선민족이 단결된 반제자주역량으로 민족자주위업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을 때, ≪단결된≫ 반제자주역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단결이란 추상적 개념이 아니며 주체의 운동력과 생활력을 표현하는 조직개념이다. 반제자주화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결되어야 할 반제자주역량이란 곧 ≪조직적으로≫ 결합된 주체역량을 말한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민족의 단결된 힘≫을 구호로 정하고 그것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추상적 개념을 강조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족의 단결된 반제자주역량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명해야 한다.

첫째로,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명실공히 민족주체역량이 된다는 뜻이다. 민족자주위업을 실현하는 주체역량이란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조직적으로 결합된 위력적인 힘의 총량을 뜻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조직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남아있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 아직 장래의 일로 남아있는 오늘 그러한 조직적 결합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조직적 결합이란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와 지향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아직까지는 현실의 운동력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앞으로 정세가 발전하고 운동력이 강화되면 그러한 조직적 결합이 실현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며,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은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함께 힘써야 한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킨다면 지금 초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교류의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 결합의 수준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적 결합이 가능하지 아니한 현재의 조건에서 민족자주위업은 그러한 결합이 실현될 때까지 그 수행을 무한정 뒤로 미루어야 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비록 조직적 결합을 이루지 못한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민족자주위업은 수행해야 하며 한시 바삐 완수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반제투쟁은 북측과 남측의 민족민주전선이 함께 전개하고 있으나 분단선을 중심으로 분리된 상태로 포진되어 있어 그 투쟁력의 역량수준과 전개양상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문제는 오늘 조선반도에서 민족자주위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문제이며, 동시에 전국적 판도에서 반제자주역량의 포진구도를 살펴보는 문제이다.

조선반도에서 반제자주역량의 포진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민족자주위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력은 남측의 민족민주전선의 반제자주역량이 아니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에서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어떻게 제국주의세력을 반대 · 배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제국주의세력을 반대 · 배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남측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한다는 말이다. 미군이 철거되었는데도 미국이 북측에 대한 고립 · 압살책동을 지속하고 남측에 대한 지배 · 약탈체제를 계속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 분명하다. 제국주의 주둔군의 무력으로 안받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고립 · 압살책동은 무력해지며 지배 · 약탈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미군을 철거하는 과제로 집중된다.

그렇다면 미군을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 그 철거방도를 크게 나누어보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한 방도는 혁명무력을 동원하여 철거하는 해방전쟁이며, 다른 한 방도는 정치 · 외교력을 동원하여 제거하는 평화협상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중적 투쟁력을 동원하여 철거하는 제3의 방도도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대중의 정치투쟁으로 제국주의 무력을 철거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민족민주전선의 미군 철거 투쟁사를 되돌아보게 된다.

첫째로, 남측이 제국주의 군대의 직접통치 아래에 있었

→

던 1940년대 후반에,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제국주의 무력을 철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하였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미군 철거투쟁은 남측 지역에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 속에서 날로 고양되었으며, 심지어 우파 민족주의세력도 외국군대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시위투쟁이 각지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다. 1946년부터 1950년까지 격동기에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이처럼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 속에서 미군 철거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했으나 그러한 대중의 정치투쟁만으로는 미군을 철거하지 못했다.

둘째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베트남 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어떻게 미군 철거투쟁을 전개하였는가를 살펴보자.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은 북베트남의 혁명무력과 조직적으로 결합한 남측의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혁명무력이 해방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이끄는 대중의 정치투쟁도 치열하게 전개되었지만 그러한 투쟁력만으로는 미군을 철거하지 못했다.

셋째로, ≪필리핀 민족민주전선≫의 미군 철거투쟁을 살펴보자. 1992년 11월 24일은 아시아지역에 배치하였던 가장 커다란 해군기지인 필리핀 수빅만 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한 날이다. 그로써 1898년에 스페인과 미국이 벌인 식민지 쟁탈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뒤로 94년 동안 필리핀에 주둔해왔던 미군은 완전히 철수하였다. 필리핀은 스페인에게 점령된 뒤로 421년만에 처음으로 제국주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미국은 1898년부터 필리핀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와 수탈을 시작하였고 필리핀에 모두 6개의 미군기지를 설치하였다. 필리핀 민족민주전선은 1969년부터 제국주의와 친미예속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계속해왔다.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신인민군(New People's Army)≫의 병력은 1980년대에는 2만5천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줄어들었다고 한다. 필리핀 민족민주전선은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미군 철거투쟁을 전개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장투쟁도 벌였지만 대중의 정치투쟁으로 미군을 철거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냉전의 해체와 그에 따른 동남아 정세의 변화라는 외적 요인이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그 계승국 러시아는 지난 냉전 시기에 베트남의 캄란만에 주둔시키면서 동남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였던 무력을 철수하였다. 그렇게 되자 미국은 필리핀 주둔 미군무력을 철수하여 괌, 싱가포르, 일본, 남측에 분산하여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옛 소련이 캄란만에 주둔시키고 있었던 무력을 철수하지 않았다면 필리핀에서 미군 철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둘째, 필리핀 정권의 변화라는 내적 요인이 있었다. 필리핀 주둔 미군이 철수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필리핀 상원의 철군파였다. 1947년에 체결된 미국-필리핀 군사기지 협정이 1991년 9월 16일에 만료되자 철군파는 미군 주둔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시 아키노 정권과 부시 정권 사이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새로운 군사기지 협정을 거부하였다. 필리핀 상원의 거부표결로 새로운 군사기지 협정을 체결하는 데 실패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군을 철수하였다. 철군파의 등장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1986년 2월에 이른바 ≪인민의 힘(People's Power)≫에 의한 정권교체를 실현하였던 정치세력의 집권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마르코스 파시스트 정권을 무너뜨린 이 새로운 정치세력은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을 지니고 있는 우파 민족주의 세력이었다. 1992년에 미군이 철수될 때, 이 새로운 정치세력은 1957년에 필리핀 공산당을 불법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던 전복활동금지법을 철폐하였으며, 자기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필리핀 민족민주전선과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시작하였다. 그 평화협상은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1년 4월 8일 필리핀 민족민주전선 평화협상 대표들이 아로요 정부 관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마닐라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해방전쟁으로 미군을 철거한 베트남의 경우는 완전한 철군이었던 반면, 필리핀과 미국의 타협으로 미군을 철수시킨 필리핀의 경우는 불완전한 철군이었다.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관계는 군사기지협정, 군사원조협정, 상호방위조약으로 규정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군사기지협정만 폐기되어 미군이 철수한 것이며 나머지 협정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미군 군사고문단(JUSMAG)이 지금도 여전히 필리핀의 군사주권을 좌우하고 있다. 필리핀 상원은 1999년 5월에 ≪방문군 협정(VFA)≫을 비준하였으며 그로써 미군은 필리핀 영토에 ≪방문군≫으로 일시 머물면서 필리핀군과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고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특권도 다시 틀어쥐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민족민주전선이 이끄는 대중적 정치투쟁만으로는 미군을 철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미군 철거투쟁에서 대중적 투쟁력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주관주의와 조급성은 피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철거하는 책임적 주체는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며,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그에 대한 방조역량이다.

아시아의 반제자주화운동사에서 해방전쟁으로 미군을 철거했던 베트남 민족의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해방전쟁으로 제국주의 무력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단계는 평화협상을 통해서 어차피 정치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제국주의세력과 협상을 벌여서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제국주의세력에게 물러나 주기를 청원하거나 촉구하는 비굴한 행위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반제역량의 주체가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정치 · 외교력을 동원하여 전개하는 치열한 정치투쟁이다. ≪총포성 없는 해방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만일 반제역량의 주체가 제국주의 무력에 맞설 수 있는 막강한 혁명무력으로 안받침을 받지 못하는 허약한 정치 · 외교력을 가지고 있다면 제국주의세력에 대한 평화협상은 애초에 추진될 수 없으며 정치적 해결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제국주의 무력을 철거하기 위하여 해방전쟁을 벌이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상대로 정치협상을 벌일 수도 없다. 미국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을 상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금 남측 민족민주전선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도는 자주의식으로 각성된 대중의 힘을 조직화하여 제국주의세력을 반대하는 대중적 정치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반제투쟁을 한층 더 고양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중을 자주의식으로 각성시키느냐 못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 각성된 대중을 조직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요즈음 어떤 사람들은 부시 정권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책동을 반대하는 문제를 반미투쟁의 중심과제로 설정하려고 하는 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책동이 북측을 겨냥하여 추진되고 있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은 당연히 반미투쟁의 중심에 배치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책동은 미국의 군사력을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력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전세계에 대한 군사적 지배야망을 달성하려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으며, 그와 더불어 미국의 군수산업자본을 살찌우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막아보겠다는 말은 그러한 목적을 위장하려는 간교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과학기술력이 과연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으며, 미국이 설령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력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민족민주전선의 반미투쟁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남측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의 비법성과 야만성을 대중들에게 폭로하고 그들이 미군 철거투쟁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미군 범죄문제, 매향리 폭격장을 비롯한 미군기지 문제, 조선전쟁 중에 자행된 양민학살 문제, 미국산 무기 강매 문제, 주둔군 지위협정 문제 등을 줄기차게 제기하는 일상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군이 대중투쟁의 위력에 질린 나머지 주둔기지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른 한 편, 북측의 반제투쟁은 조선로동당이 이끌어가고 있다. 조선로동당이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킨 2천3백만 인민의 조직적 단결력과 조선로동당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시킨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이 북측의 반제투쟁을 전개하는 정치 · 군사력의 실체다. 북측은 그러한 강력한 힘으로 안받침을 받는 국가적 차원의 외교력을 동원하여 제국주의세력인 미국을 결국 정치협상의 자리로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으며, 마침내 미국의 고립 · 압살정책을 제거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에서 발표된 조 · 미 공동성명이 주는 정치적 의의는 바로 그것이다. 조 · 미 공동성명은 조 · 미 두 나라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성명이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자주위업을 완수하는 투쟁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은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미군을 철거하는 투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 철거투쟁에 관하여 생각할 때,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북측에 비하여 이처럼 투쟁의 제한성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역량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다. 역량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단독적인 투쟁력만으로 미군을 철거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미군 철거투쟁에서 자신을 방조역량이 아니라 책임적 주체라고 과대평가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 전체의 반제자주역량의 포진구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주도하고 있는 미군 철거투쟁에서 대중적 정치투쟁이라는 방조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민족자주위업의 수행경로에 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 위업이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군을 철거하는 정치과업은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북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고립 · 압살책동이 먼저 제거될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북측이 제국주의세력의 고립 · 압살책동을 제거하면 미국은 남측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제국주의세력의 지배 · 약탈을 반대 · 배격하는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투쟁이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순차적 과정을 거꾸로 예상하고 있다. 그들은 북측과 미국의 관계개선에 따라 미국이 남측에 미군을 주둔시킬 명분을 잃어버리면 그러한 유리한 공간을 이용하여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대중적 정치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주둔 명분을 잃어버린 불리한 조건에서 대중적 정치투쟁에 밀리게 된 미국이 미군을 철수하게 되어 민족의 자주성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순차적 과정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다.

북측이 제국주의세력의 고립 · 압살책동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이 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반제투쟁은 승리적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그 승리적 상승단계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 마침내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될 것이다.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필리핀의 경우에서 드러난 불완전한 미군 철수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민족의 자주성과 연방제 통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한다≫는 표현을 쓰는 까닭은 자주적 민주정부는 민족민주전선의 단독적인 정치역량만으로 수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민족민주전선 단독으로가 아니라 남측의 통일전선에 의해서 수립될 수 있다고 예상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통일전선 전략과 그 운동력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통일전선 문제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해설할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사회단체의 지위와 조직수준을 넘어서서 정치세력화를 실현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세력화는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해야 해결되는 문제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역량만이 아니라 다양한 중간세력을 결집하여 건설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적 대중정당은 노동계급의 계급정당 또는 노농동맹의 정당이 아니라, 민족민주전선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중간세력들이 결합하는 통일전선의 정당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남측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진보적인 대중정당을 이끌면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 계속)

대표집필자 최성원
2001년 5월